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시간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을 맡은 김명호 목사입니다. 저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은퇴목사입니다. 6월에 25회의 방송을 끝내고 한국에 집회를 위하여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7월부터 새 방송을 부탁 받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지금부터 12월 말까지 25,6회에 걸쳐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혼자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더 깊게 사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1:1~3]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17:3)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영생이 없습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예수님을 알 때에 가능합니다. 이것도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니라.”(요14:6)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올바르게 믿으려면 예수님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올바르게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른 예수에 대하여 경계합니다. 다른 예수라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5:39) 신구약성경 66권은 예수님의 완전한 초상화를 그려놓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완전한 초상화는 66/66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65/66가 되어도 완전한 초상화가 아니지요. 또 67/66이 되어도 완전한 초상화가 아닙니다. 65/66는 손가락 하나가 없든지, 발톱이라도 빠졌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고, 67/66은 손가락이 하나 더 있든지 무엇이나 가장 정상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닌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66/66이 아닌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파하면 그것이 다른 예수가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66/66인 온전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바울은 당시에 사람들 중에서 다른 예수를 잘 받아들이는 것을 경계하고 책망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고후11:4) 이 말씀에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잘 용납한다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의 온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야 합니다. 이번 한 25,6회의 말씀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만나도록 말씀을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창조주라고 계시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계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

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으신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1:14이 분명히 가르치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 곧 사람이 되어 우리들 사람 중에 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사람들과 함께 33년 반을 생활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그분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요1:10,11) 세상은 그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다음 말을 한 번 들어보십시오. “전 서강대 교수·성공회대 초빙교수, 다석학회 회장

신약성서 27권 가운데 ‘예수는 하느님이다’는 극존칭은 요한복음과 요한1서에만 4번 나온다. 서기 325년 로마의 니케아공의회는 요한복음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신약성서의 다른 복음들은 그리스도론이 조금씩 다 다르다. 당시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 이들은 예수를 너무나 존경했다. 그러다보니 좋다는 존칭은 다 붙였다. 한없이 존경스러우니 최고의 존칭을 드린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예수를 하느님으로 보는 신조를 버린 지 오래다. ‘예수는 하느님이다’는 것은 시적인 고백언어다. 찬양하는 노래다. 자신이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이 ‘태양’이라며 “오 솔레 미오!”라고 고백하며 노래하는 것과 같은 신앙 고백적 시어다. (성서 전체의 맥락을 보면) 예수는 하느님 아버지의 화신이다.” 이것은 2008년 10월 21일 한겨레 신문에 실린 기사를 옮긴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을 신문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전 서강대 교수·성공회대 초빙교수, 다석학회 회장” 신부님이라고요. 이분은 “개인적으로는 예수를 하느님으로 보는 신조를 버린 지 오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하신 분은 기독교 교직자입니다. 그 신문에는 이분의 말뿐만 아니라 그 신문에 기록된 다른 분들의 말도 체계는 의미상으로는 아주 비슷하게 보였습니다. 그분들은 목사님도 있고, 미국 신학대학 교수님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당시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와 아주 흡사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분들은 성경을 정확 무오 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다. 어쩌면 이분들은 성경을 하나의 고대 종교 서적으로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들이 자기 신앙고백을 한 기록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에 기록된 66/66의 온전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저는 미련한지 모르지만 성경은 전능하신 여호와라 이름하신 하나님께서 정확 무오 한 진리의 말씀을 계시해주신 말씀이라고 철저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는고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고후4:13) 청취자들께서도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는지는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성경을 찾아 실험하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의 진위를 가려내는 유일한 시금석입니다. 누가 어떤 천금 같은 말을 해도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하나님이신데, 이사를 통하여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

임이라.”(사9:6) 우리 사람들에게 아기로 태어나신 그분은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에 아들로 주어졌고, 원래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계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전능하다고 번역된 말이 Almighty가 아니고 그냥 mighty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히브리말로 전능은 “샤다이(שַׁדַּי)”인데 사9:6에는 “기보르(גִּבּוֹר)”를 썼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 여러 곳에 여호와 하나님에게 “기보르”를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들어보면,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시24:8)라는 말씀을 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능한 여호와라는 말을 두 번이나 했는데 그 말이 “기보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샤다이”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기보르”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 되어 온신 그 말씀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아들의 신분을 취하여 세상에 사람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2:6~8) 이 말씀은 예수님의 한없이 높으심과 한없이 낮아지심에 대한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이미 낮추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아들의 신분을 취하여 사람이 되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만나고 올바르게 아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 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왜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이 되어 오셔야만 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간단하지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과, 그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한 사람씩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시키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창 1:26~28) 그런데 이렇게 하시기 전에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 한 사람을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실과가 열리는 나무들을 나게 하시고 그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동산 안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명령하셨지요.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시키고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3장에 이르면 뱀이 여자를 꺾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충동합니다.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속이지요. 여자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아담도 먹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지요. 이제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하라고도 하셨지요. 이제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죽으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지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려면 죽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게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도 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귀지요. 마귀는 여자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도록 했고 그렇게 되었으

니 당연히 여자도 아담도 다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니 하나님의 명령은 전혀 권위가 없어지고,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니고 자기 기분대로 처리하는 분이라고 주장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주께서는 죽게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도 해서 친히 하신 두 명령이 다 시행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입니다.

창조주께서는 마귀가 수용할만한 방법으로 이 일을 다 이루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아담 부부를 죽게 하면 되겠지만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할 수 없으니 문제입니다. 창조주께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창조주 삼위일체 여호와께서는 삼위 중에 어느 분이 사람이 되어서 아담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이 제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실 때는 그분과 싸워서 졌지만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면 이기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탄생하시고 아담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이런 조건으로 아담 부부는 일단 사망 집행이 유예됩니다. 이 유예된 기간 동안 생명을 유지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원래의 생명인 영생하는 생명은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생육하는 일을 위하여 육체의 생명으로 일정기간 즉 유예기간을 살아가게 될 것이며 그 기간 동안 생육하고 번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은 아담 부부가 영생의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의미상으로는 다 죽은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전15:22)고 가르쳐줍니다. 이제 육신이 되실 말씀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인류를 대신하여 선악과를 먹을 때 당할 그 죽음 자체를 대신 당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친히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창3:15)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생명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담과 함께 아담의 모든 후손도 생명 자체가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호홉하고 누리는 생명은 생명 자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으로 가는 기간일 뿐입니다. 생명 자체라는 말은 죽음과 상관없는 삶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생명 자체이십니다. 이 생명을 받았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생명을 반납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서 이어지는 육체의 생명으로만 태어나는 사람은 아담의 죽음을 대신 죽어줄 자격이 없습니다. 그도 이미 아담 안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아담의 죽음을 대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죽음을 대신할 분은 아담의 생명과 상관없이 생명 자체가신 분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아담의 죽음을 대신해야 합니다. 그 일을 삼위일체의 한 위이신 분이 친히 담당하기로 한 것이지요. 그 일을 맡은 분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까닭으로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기로 한 것이며 아담의 후손으로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처녀의 몸을 통하여 탄생하신 것입니다.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예수님은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 창조주이신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아담 부부가 선악과를 먹고 영생의 생명을 잃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과 죽는 일을 동시에 이루게 하기 위하여 말씀 하나님이 아담을 대신하여 죽어주셔서 아담과 그의 모든 자손들에게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시켜주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원래 신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며, 창조주이신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계시해 준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도 아담의 후손 중에 하나인 사람인데 위대한 사랑을 실천한 인류의 사표가 되는 분쯤으로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위대한 성인들과 위인들과 선생들과 근본이 다른 분입니다. 성인 공자나,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소크라테스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들도 이미 아담의 씨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죽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담의 씨에서 탄생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생명 자체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요1:4)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공자나 석가모니라도, 아담이 없었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 아담의 씨로 태어난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이 없어도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이 우리와 똑 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그분은 원래가 창조주이신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세상에 사람 되어 오셨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셨고, 또한 동시에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신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이 아담 안에서 이미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믿는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죽은 데서 예수 안에서 산 자가 됩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런 신분으로 세상에 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구주가 없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선한 행위로는 사망의 존재에서 생명의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담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의 예외 없이 이미 아담 안에서 다 죽었습니다. 생명 자체가 없어진 존재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한들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스스로 선을 행하여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지요. 생명 자체가신 분이 죽은 자를 살려주지 않은 한 죽은 자 스스로가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으로 성경은 예수님 외에는 결코 구주가 없다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무도 속일 수 없도록 구주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즉 구주의 신원조회를 해서 확인할 수 있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중대한 일을 확인하는 것은 할만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이 구주일 수밖에 없는 사실을 확인해 나아가도록 해보지요. 기대에 못 미칠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계시된 사실을 찾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들께서도 저와 함께 이 확인 작업에 동참하시고 예수를 확실히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와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생명 자체를 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으로 다음 시간에는 죄가 무엇이며 왜 생겼는지 성경의 계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예수님 이야기를 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인하고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1. 5. 20.(금) 10:28pm.